

## 신여성의 고백과 근대성

최혜실\*

1. 서론
2. 近代 結婚 이데올로기의 他者로서의 新女性
3. 섹슈얼리티와 모성성의 충돌 : 나혜석
4. '나쁜 피'와 벌받은 몸, 타자화의 과정 : 김명순
5. 에로스, 모성애, 아가페 : 김원주의 경우
6. 결론

### 초록

본고에서는 신여성의 고백체 담론을 근대성의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그 근대 극복의 논리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남성 지식인들의 고백체가 근대의 제도를 반복하는데 반하여 신여성의 그것은 억압적인 제도에 대한 타자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당시 한국 신여성들은 '피식민자'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의 타자성을 지닌 존재였다. 물론 그들은 '피식민자'로서의 타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서구의 여성, 서구의 연애를 논리전개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그 한계는 '성욕'과 '모성'이라는, 금기시되는 부분에 들어갈 때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때 그들의 주장은 명징하고 체계적 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불규칙하며 산만하기조차 하여 무책임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근대를 이끌어가는 확고한 '논리'를 잠식해 들어가서 전복시키고 다양화시키는데 유효적절한 것이기도 하다.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1. 서론

### 1) 연구 목적과 방법

지금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근대성 논의는 移植 文學論과 近代 起點論이라는 두 대립항에서 이루어져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면서도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았다. 전자는 우리 신문학이 이질적인 담론들간의 세력 관계에서 형성되었으며 서구 근대가 다른 세력을 억압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우연히 선택된 구조(서구 근대)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역사는 필연적이고 線的(linear)인 것이 되며 이런 특성들은 서구 오리엔탈리즘의 根幹을 이룬다. 그러나 근대 기점론도 자칫 자기 고유성을 강조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독백'속으로 대화를 니룰 타자가 없는 세계속에서 자기동일성을 반복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최근 이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東亞細亞論과 脫近代論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 또한 아직 서구와 일본의 이중의 질곡속에서 미묘하게 드러나는 한국 문학의 근대성을 구명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

많은 연구자들이 최근 지적한 바 있듯이 서구 근대 사회는 文化의 他者(광인, 유아, 어린이, 피식민자, 그리고 여성 등)에게 열등하고 주변적인 위치밖에 부여하지 않는 多層的인 移項對立의 강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이 방식은 미국을 他者로 상징하면서도 자신은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일본의 방식-상대방의 他者性을 無化시키고 나서 타자를 지배하는 同助論의 방식에 의해 한국 근대 문학에 이중적인 질곡으로 교묘하게 작용한다.<sup>2)</sup>

예를 들면 한국 국문학자들은 근대성을 연구할 때, 표면적으로는 일본

---

1) Michel Foucault이 견해가 대표적이다. Michel Foucault, 이해숙, 이영목 공역, 『성의 역사』(나남출판, 1997)를 참조.

2) 姜尙中,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8) 참조.

을 한국에 적대적인 타자로 상정하면서도 실제 일본 근대 문학의 여러 요소들을 서구의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이 얼마나 한국 근대 문화에 교묘하게 침투해있었는가를 간과하고 만다. 일본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한국을 강탈하고 한국민을 핍박했는가에 분노하고 문학의 내용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려 하면서도 형식 속의 드러남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단지 일본이 자연주의, 낭만주의 같은 온갖 서구 문예사조나 문학 형식들의 중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실상 일본의 동조론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형식을 수입하는 점에서 너 일본이나 나 조선이나 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그리고 형식속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숨어있겠느냐는 안이함이 우리의 이중적인 타자성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고백체 소설은 독자적인 한국의 소설 양식도, 일본 사소설 그 자체도 될 수 없으나 1920년대 일본 유학생들은 무의식중에 형식의 모방을 개성의 표현으로 착각한다. 반면 여성 고백체 소설은 여러 면에서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획득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게 식민지는 '성적인 기대', '싫증나지 않는 관능성', '질리지 않는 욕망'을 도박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이 성적 은유의 증식은 남성=식민지 제국과 여성=피식민자=종속국이라는 이항대립으로 확립된다.<sup>3)</sup> 당시 한국 여성은 피식민자이면서 동시에 여성이었는데 이 이중적 타자성 때문에 단지 근대 소설의 형식으로서 고백의 형식을 흉내내었을 뿐인 남성들과 달리 절실했고 따라서 당대 제도에 대한 전복의 논리를 지니고 있었다.

이때 '근대적 사랑'과 '성(gender)'의 개념은 또한 '근대성'을 상정할 때 자칫 빠지기 쉬운 추상화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유연애의 낭만적 사랑과 母性愛의 결합은 개성을 중시하면서도 체계속에서 인간을 물화시키는 근대의 이중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근

3) 姜尙中, 앞의 책, p.90.

대는 표면적으로는 성에 대한 억압의 기제가 이완되어 결혼에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혹독한 性的 禁忌에서 婚前 혹은 婚外 關係에 대한 상대적 관용이 생기는 듯 보인다. 그러나 많은 이론가들은 근대 문명이 성적 요구에 대해 본질적으로 억압적이라고 보았다. 물론 근대 제도들이 발달함에 따라 성적 억압이 증대하였다기보다 사회전반에 성적 담론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그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억압적 양상에서 점차 인간은 전근대의 조형적 섹슈얼리티(plastic sexuality)를 극복하고 평등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sup>4)</sup> 아울러 '사랑 혹은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소설의 보편적인 주제였으면서도 병적 심리나 단순히 사회와 인물간의 은유로 치부되어왔던 이 주제가 사실은 근대 소설의 형식을 이루는 것임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본다.

## 2. 近代 結婚 이데올로기의 他者로서의 新女性

### 1) 이광수의 자유연애 결혼관과 조혼 반대

전근대적 사랑은 공동체 윤리로서 법의 차원으로 미분화되어 성립하는 반면, 근대의 사랑의 논리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개화기와 1910년대에는 전근대의 윤리관을 본질적으로 탈피하지 못한 연유로 '사랑'의 문제가 지식인들의 근대화 추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조선시대 계층은 생득적으로 형성되었고 따라서 결혼제도 또한 이 생득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증매혼, 집안대 집안의 결혼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개화기 이후 천부인권설의 역설, 교육의 보급으

---

4) Anthony Giddens,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로 양반/상민의 계급구분은 와해되고 귀족적 지위가 후천적 능력에 의해 획득되는 근대사회가 형성된다.

191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문벌있는 양반 계층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1920년대는 유학생의 숫자가 늘고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고학생이 늘어났다.<sup>5)</sup> 이 사실은 유학생들이 점차 양반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sup> 그리고 이 사실은 한국 사회가 양반/평민의 계층적 사회 분화에서 기능적 사회분화로 이행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생득적으로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문대 가문의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양반 계층과 다른 결혼 양태를 유지하게 된다.<sup>7)</sup>

그리하여 낭만적 사랑에 의거한 자유연애 결혼은 이들이 채택한 새로운 결혼제도였다. 그리고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이론화시킨 대표적 인물이 이광수였다. 그는 과거 양반들의 성적 욕망의 체제 및 방식, 혈종 유지를 위한 혼인과 욕망해결을 위한 기생계층의 이용을 철저히 비판함으로써<sup>8)</sup> 지식인 계층에 걸맞는 성적 욕망을 재정립할 토대를 만들고 있다.<sup>9)</sup> 나아가 그는 자신의 계층의 성적욕망을 사회적 차이를 만드는 엄격한 금기행사방법인 법에 종속시켜서 성적 욕망의 원칙을 정립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켰다. 개화기부터 지속되어왔던 과부제가 금지의 철폐, 중혼제의 철폐는 바로 근대이후 신흥계층의 성적 욕망을 제도화시킨 예들이다.

이때 사랑은 지극히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남성과 동일한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은 결혼 전에는 남성의 연애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양

---

5)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66집(1995.12).

6) 최혜실, 「'무정'에 나타난 근대성(modernity), 사랑(amour), 성(gender)」, 1998년도 현대문학회 하기 학술발표회(1998.8.21. 발표문).

7) 최혜실, 「개화기 근대 정신과 자유연애 결혼」, 현대문학이론학회 '98 전국 학술대회(33차)(1998.11.29) 참조.

8) 「新生活論」, 『每日申報』, 1919.9.6~10.9.

9) 「婚姻論」, 『每日申報』, 1917.11.21~30.

과 자질을 갖춘 존재로 결혼 후에는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존재로 규정된다. 근대의 일부일처제를 움직이는 이데올로기는 결혼 전에는 '낭만적 사랑'으로 결혼 후에는 '모성애'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광수가 1920년대 후반기부터 모성을 강조하는 것은<sup>10)</sup>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sup>11)</sup> 신여성은 근대 지식인 남성들의 결혼 이데올로기의 타자였다.

## 2) 신여성 계층의 형성과 연애, 결혼

### (1) 신여성의 교육 수준과 교육 목표, 계층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개화기부터 한국은 여성 교육에 적극적이었고 여성 선각자들은 대부분 교육에 열중하였다. 그런데 육영활동에 참여한 여성의 과반수 이상인 56.4%가 전통교육을 받은 평민층이었다. 또 지방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특히 이북지방 출신들이 많았다. 또 교사들은 그 중 62.5%가 평민층 여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평민출신으로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 점차 사회적 정진적 지도자로 전환되는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미천한 계층이 많다는 사실이 당시 많은 남성 지식인들(계층상 하등 다를 것이 없는)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자유연애를 주장하고 실천한 이유가 '나쁜 피'에 있음이 여러 작품에서 거론되었다.

더구나 당시 학교 교육은 현모양처 양성을 위한 기술중심 교육이었고 이것은 당시 학생들이 자각하고 있던 신여성의 역할과 매우 거리가 먼

10) 『母性中心의 女子教育』, 『新女性』, 1925.1.

11) 초기 유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격하게 자유연애를 외쳤던 이광수가 1920년대 후기부터 양치현모를 찬양한 까닭을 청년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넘어간 위치 변동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의 보수성은 이미 초기논설(『朝鮮 家庭의 改革』, 『每日申報』, 1916.12.14~22)에도 나타난다. 근대 결혼 제도를 지탱하는 것이 '낭만적 사랑'과 '모성애'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것이였다.

## (2) 결혼의 실패와 그 이유

1920년대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신여성들의 배우자가 될만한 지식남성의 경우 대개는 조혼을 한 이들이였다. 때문에 신여성의 연애와 결혼은 사회문제의 하나였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신여성의 결혼형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920년대에 이르러 허영심이나 타락, 생활난으로 첩이 되는 신여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더구나 결혼관과 정조관의 변화는 이혼사건의 격증이라는 사회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에 비인간적인 결혼형태에 의해 맺어진 가정은 사회에도 역기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고려하는 경향과 이혼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구시대의 여성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혼률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이혼의 원인<sup>12)</sup>에 부인에 대한 학대, 유기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지식 청년들이 처음에 혼인했다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애정없는 부인과 이혼했다는 당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혼률은 당시 부인잡지나 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높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자료들의 이혼률이 훨씬 과장되어 있다. 결국 당시 잡지들은 선정성을 위해 혹은 자신의 관심사가 지식인들의 결혼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논의를 몰아간 혐의가 짙다.

즉, 이혼은 당시 대도시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언론은 유난히 신여성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들의 사생활, 특히 성적인 문제는 하나 하나가 공적인 이슈로 변모되어

---

12) 강병식, 「일제하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 및 출산 실태 연구」, 『史學誌』 제28호(서울 단국대 사학회, 1995.4).

언론의 관심과 질타를 한몸에 받게 된다.

당시 많은 신여성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 나간다. 반면 김마리아, 김활란, 황에스터 등은 소명의식을 갖고 직업에 헌신하여 독신이나 만혼의 경향을 보인다.

### 3) 성적 대상으로서의 신여성의 몸 : 스타일로서의 근대와 신여성의 패션

당시 여성들은 복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옷차림은 당대 여성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 예로 1910년경 장옷이 자취를 감추는데 이때 장옷은 여성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사적 영역에만 위치를 부여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따라서 장옷의 제거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징들은 도처에 나타난다. 뒤통은 당시 여성에게 구시대의 의식을 버린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안경은 공부하는 여성의 면모를 드러내는 장신구였다. 특히 짧아진 치마와 구두는 골방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복식개량에 대해 김원주와 나혜석이 한 논쟁에서 당시 신여성들이 패션에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본래의 의도는 외적 요인과 스타일의 본질에 의해 변질되고 만다. 당시 남성들은 신여성의 이런 복장개혁을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여성들은 여성해방의 상징으로 구두를 볼지 몰랐으나 남성들은 드러난 종아리, 땀시있는 구두의 굽에 황홀한 시선을 보냈다. 특히 구두는 높은 가격 때문에 신여성이 사치를 한다는 비난의 좋은 증거로 즐겨 인용되던 것이었다.

여학생의 옷차림은 당시 남성들에게 욕망을 일으키는 상징적 매개물이었다. 때문에 당시 기생들은 여학생 흉내를 자주 내곤 하였고 여학생이 아니면서 여학생 복장을 한 여성을 ‘밀가루’라고 했다. 이 속에는 여학생이 더 품질이 좋은, 진짜이고 겉포장만 유사한 상품을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것은 그만큼 여학생 출신이라는 조건이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당시 남성들은 신여성이 새 시대의 일군이 되기는커녕 남성들을 흥분시킬 미애나 관심을 가진 채 연애나 일삼는 존재라고 비난하며 그녀들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었다.

### 3. 섹슈얼리티와 모성성의 충돌 : 나혜석<sup>13)</sup>

#### 1) 모성에 대해 성찰하기 : 자기 속에 타자 느끼기

…… 胎氣다, 姪子이다 라고 꼭 집어내기는 싫었다 그런 중에 뱃 속에는 어느덧 무엇이 움즈러 기리기 始作하는 것을 깨다른 나는 몸이 옷속해지고 가슴에서 무엇인지 떨어지는 소리가 宛然히 탕하는 것 가티 들어있다.

나는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모든 사람의 말은 나를 誚罵하는 것 갖고 바람에 날려 들니우는 웃음소리는 나를 비웃는것 가타왔다. 탕탕 부딪고 엉엉울고도 심혔고 내살을 꼬집어 뜻어 줄줄 흐르는 빨간피를 또렷또렷 보고도 심혔다. 아아, 깃뿌기 권양 愁心에 싸힐뿐이 우습기커녕 부적부적 가슴을 태일뿐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 苦惱에 빠지는 初步에 서있다. 마치 눈뜨고 물에빠지는 격이었다. 實로 압히 캄캄하야 올때에 하염업시 눈물이 흘렀다. 그리하야 世上일을 잇고 단잠에 잠것슬새라도 누가 꺾해서 바늘뿔으로 찌르는 것 가티 별안간 惝惝놀나 깨어졌다.<sup>14)</sup>

김우영과 결혼한 나혜석은 첫딸을 낳는다. 그들의 기쁨은 딸의 이름을 김우영과 나혜석의 기쁨, 김나열이라 지었다는데서 드러난다. 오랜 연애와 갈등 속에서 결혼했고 그들의 사랑의 첫 결실이었기에 둘은 행복했고 나혜석은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sup>15)</sup>

13) 최혜실, 「여성 고백체의 근대적 의미-나혜석의 '고백'에 나타난 '母性과 性慾(sexuality)」, 『현대소설연구』 10, 1999.6) 참조.

14) 「母된 感想期」, 『東明』, 1923.1.1. 앞의 논문에서 소개함.

그런데 다른 사람 아닌, 그런 나혜석이 임신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어머니가 될 생각이 꿈에도 없었는데 뜻밖에 임신을 한 사실에 대한 놀라움,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좌절시키리라는 불안이 눈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구절이다.

농경사회와 달리 근대산업사회 이후 가정과 직장이 분리된 후 여성은 이제 가정이란 사적 영역에서 소비자로서, 양육자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해야 했다. 이 와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라는 사실과 아이들은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사실이 간과된채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는 신성한 존재라는 범주속에 묶이게 된다. 그리고 이 범주를 벗어나는 여성된 나쁜 어머니로 매도되고 비난된다. 이 규정은 너무나 확고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모성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각하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출산의 고통 속에서 솟아나오는 환희, 수유할 때의 만족감을 지극히 자연발생적인 주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모성은 적절하게 주어져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야말로 근대가 상정하는 어머니의 범주틀이다. 이런 보편적인 어머니의 규율에 적용한 '정상적인' 어머니들은 자식을 버리고 달아나거나 어머니된 현실에 피로워하는, 또 아예 독신으로 평생을 지내는 여성들을 비정상, 범죄자로 여김으로써 자기속에 은밀히 속삭이는 또다른 자기의 목소리를 타자화한다. 근대가 추구하는 인간의 의식은 동일하고 명확한, 통일된 것이다. 근대적 인간은 통제된 규율에 의해 주입된 단일한 의식을 자신의 주체라 생각하는데 그 사고방식을 돕는 것은 그 규율에서 이탈하는 모든 사고와 행동을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분열하는 주체의 의식을 보일 때 감시의 눈길은 매서운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다.

백결생이란 당대 남성 지식인의 「관념의 남루를 벗은 비애」는 근대가

---

15) 「나의 어린애 기른 경험」(『조선일보』, 1926.1.3)을 보면 나혜석이 아이 기르기와 아이 가르치기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 분열하는 주체를 비판하고 통제하는가를 드러내는 좋은 예이다. 그는 사람이 관념없이 자아의 통일을 만들 수 없으므로 묵은 관념을 배척하였으면 반드시 그를 배척할 새 관념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나혜석이 또하나의 자아를 드러내고 주체의 분열을 일으켰음을 비난했다. 근대인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사회를 구분하고 후자가 전자에 자양분을 주는 보조의 영역으로 놓는다. 이 외중에 남성은 유리한 공적 영역에 서므로 당연히 그들의 논리는 명쾌하고 힘이 있다. 반면 동일자로서 남성 주체의 타자로 존재하는 여성은 어느 순간 그 모순을 깨닫고 저항한다. 그러나 확고한 이성의 논리 앞에 또다른 동일자로서 즉시 자신을 확립하여 우월한 한쪽 타자로 만드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다. 여기서 새로운 전복의 논리가 생겨난다. 여성은 대안없는 회의와 분열로 자기속의 타자를 깨달음으로서 모순을 극복하려 한다.

## 2) 여성의 성욕과 벌받는 몸 : 부정한 여자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

푸코가 말했듯이 '섹슈얼리티'는 19세기에 처음으로 '성적인 혹은 성을 갖는 것의 성질'로 발견되었다. 특히 이 용어는 여성이 남성과 다른 독특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구명하는데 쓰여졌다. 이것은 근대에 이르러 섹슈얼리티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감시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남성에게는 습관적인 상황이 여성에게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 예외적인 것으로 뚜렷하게 치부되었다.

특히 기혼 여성에게 이 섹슈얼리티는 모성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근대 이후 여성의 성이 더욱 억압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부부중심의 가족이 되고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여성과 남성은 공동의 정서적 활동의 동반자가 되었으며 여성의 모성에는 낭만적 사랑과 뒤섞여 가정의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의 대가족 선호가 가족 규모를 제한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대다수의 여성들의 섹슈얼리티가 재생산-임신과 출산의

고리로부터 분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게 성이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란 관행은 남아 있었고, 실제 상황은 변화된 와중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성찰하는 분위기가 잡히게 된다. 여기서 전근대에서는 당연시되었던 남녀에 대한 섹슈얼리티의 차별적 적용은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결혼 전, 자유연애의 세례를 받았고 결혼 후에도 남성의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이 큰 상황에서 여성은 당연히 전보다 사랑의 지속, 유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아직은 남아 있는 잔재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욕'과 '생식'을 같이 놓고 보지 말자는 나혜석의 주장은 재생산의 고리에서 벗어난 근대 여성의 자각이라 볼 수 있다. 그녀는 결혼의 목적은 여자라면 남편을 얻는데, 남자라면 아내를 얻는데 있는 것이며 자녀는 부산물일수도 있다고 주장한다.<sup>16)</sup>

그녀는 정조가 '도덕도 법률도 아모것도 아니오 오직 趣味다. 밥먹고 십혔더 밥먹고 썩먹고십혔더 썩먹는거와가치 任意用意로 할거시오 決코 마음의 拘束을 밧을거시 아니'<sup>17)</sup>라고 했다. 단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생활을 통일하기 위하여 편의상 정조관념을 가질 뿐이다. 나아가 그녀는 성적 관계와 결혼을 연결시키는 현재의 결혼제도를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우자 교환수준의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sup>18)</sup>

이런 나혜석이 자신의 '간통'과 '이혼' 사실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있다.<sup>19)</sup> 이 글은 남편에게 애소하는 편지 형식의 글로 이혼의 전후사정과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는 글이다. 그녀는 결혼의 과정과 파리 유학, 파리에서 최린과의 불륜, 귀국해서의 고부간의 갈등, 최린과의 서신 왕래, 남편의 노여움, 이혼의 과정을 소상하게 지면에 '고백'하고 있다. 그녀는

16) 「우애결혼, 시험결혼」, 『삼천리』, 1930.5.

17) 「新生活에 들면서」, 『삼천리』, 1935.2.

18) 「獨身 女性의 貞操論」, 『삼천리』, 1935.10.

19) 「이혼고백서」, 『삼천리』, 1934.9.

파리에서의 소위 최린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잘못을 빌지는 않는다. 그 근거로 첫째, 남편을 잊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성 교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둘째, 여성의 정조가 소중하면 남성의 정조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들고 남편의 부정을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논리가 '약속의 어감'이라는 간통의 도덕적 비난을 어떻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계약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간통은 표면적으로는 약속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부도덕하다. 그러나 실제로 간통의 논리는 당시까지도(최근까지도) 여성에게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그 이유로는 가부장제의 제도하에 자손을 낳는 여성의 순결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섹슈얼리티가 남성중심으로 관리되어왔고 여성은 그 타자로서 존재하기 때문, 여기에 인간의 소유욕이 가세하여 약자인 여성에게 가혹하게 갇힌다는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사실에서 우리는 간통이 표면적인 절대윤리에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사랑했던(모성에 대해 회의하는 것과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나혜석은 그녀의 부정을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 뿐 아니라 면접권까지 박탈당한다. 그 부당함에 대해 항의했던 나혜석은 견고한 가부장의 논리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행려병자로 비참하게 죽어간다.

#### 4. '나쁜 피'와 별받은 몸, 타자화의 과정 : 김명순

##### 1)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성의 과학

1910년대 독일에서는 순수혈통의 백인 여성이 다른 인종의 남자와 한 번만 성교를 해도 그 피가 오염된다는 학설이 발표되고 그 학설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다른 인종의 정액은 종류가 다른 단백질이다. 그것은 성교 중에 자궁으로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아리안 여성이 단 한 번이라도 유태인과 접촉하면 그 피는 영원히 더럽혀진다. 그녀는 다른 정액과 함께 다른 혼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런 학설이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에 기원을 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이다. 히틀러는 유태인을 더럽고 호색한이고 짐승과 같이 육욕에 가득찬 도살인이라고 몰아붙임으로써 자연스러운 성욕에 대한 공포심을, 유태인을 속죄양으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낳은 성의 정치학 body politics이 1920년대 한국 사회에서 순결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 김명순에 대한 담론이 놓인다.

김안서 결국 그것은 기분 문제인데 암만 하여도 어느 구석엔가 깨림한 점이 있을걸요.

김기진 어느 생물학자의 말을 듣건대 일단 탄 남성을 접한 여자에게는 그 신체의 혈관의 어느 군데엔가 그 남성의 피가 섞여있지 않을 수 없대요. 그러기에 혈통의 순수를 보존하자면 역시 초혼이 좋은 모양이라 하더군요.

김안서 제 자식속에 탄 녀석의 피가 섞였거니 하면 상당히 불쾌한 일일걸요. 여자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삼천리사의 김동환의 사회로 이광수, 나혜석, 김기진, 김안서가 한 대담의 끝부분이다. 다른 남자를 접한 여성이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의학이나 과학이 근대의 체도를 지탱해주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는 실감이 나는 구절이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 피의 보존 때문에 여성의 정숙이 강조되는 전시대의 잔영과 인간의 소유욕(이 소유욕이 권력을 가진 자 중심으로 재편되는)이 과학

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과정이 우스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 2) 신여성, 기생, 여배우

19세기 말 근대의 영향을 받은 탓인 듯, 일본의 연극계에서는 여장한 배우 대신에 정말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러나 당시 여배우는 연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대상으로서 생각되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생계층과 관련되어 거론된다.

이후 1911년 9월 츠보우치 집안에서 마츠이 스마코의 지휘아래 입센의 인형의 집이 공연되고 여배우들은 자신의 개혁사상을 무대에 올리는 신여성으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당시 잡지 『청탐』은 여기에 고무되어 창간호에 입센의 연극에 관한 평론을 번역해 실었으며 1912년 2월호에는 마츠이 스마코의 평론을 포함하여 인형의 집에 대한 평론들을 모아서 실고 있으며 이 글들은 한국의 『신여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극은 신여성이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요부로 비난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명순이 여배우로 나선 것은 여러모로 상징적이다. 그녀는 옛날 같으면 기생이나 할 첩의 자식이 교육을 받아 신여성이 되었고 이 신여성이 배우로 나선 것이다. 1927년 비록 불발에 그쳤으나 「광랑」에 출연교섭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나의 친구여」에 출연한다. 그 후 「숙영낭자전」에 출연하였고 단오날 다른 기생들과 함께 변장미인으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그녀가 여배우로 변신하자 세간의 비아냥거림은 그치지 않았다. 어린 시절, 핏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김명순은 이제 카메라와 관중들 앞에서 그 시선의 정면에 서서 연기를 계속했고 이것은 1930년경 그녀가 홀연히 일본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대 조선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여성의 신체, 성성, 주체의 상징으로 존재한다.

### 3) 별받은 몸과 모성에

그녀가 일본으로 자취를 감춘 후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이 구구하다. 그 중 신빙성 있는 것이 일본에서 낙화생 장사를 하며 음악 학교를 다녔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이 즈음해서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일본에서 기르던 아이가 김명순의 소생이 아니라는 증언이 있고 한편으로 김명순이 임노월의 아이를 낳아서 남에게 주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아이를 낳은 사실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유력한 증거로 이때를 즈음해서 그녀의 작품에 동화가 보이고 고아원을 경영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지고 있다.

자신의 아이를 길렀던 남의 아이를 길렀던 김명순은 병든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다. 가문의 적자인 아이들과의 면접조차 거부당한 나혜석, 의도적으로 업마되기를 거부한 김원주에 비해 또하나, 1920년대의 신여성의 모성의 방식으로 김명순은 등장한다.

### 4) 시선에 의한 타자화의 과정 : 수치감과 자기파괴

염상섭의 「제야」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불륜의 죄를 저지른 까닭을 자신의 핏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즉 부친과 모친의 피가 음탕한 까닭에 자신이 그것을 유전적으로 이어받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감정적이고 남근적인 기질이 유전될 수는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염두에 둔 것이 단순히 핏줄, 유전의 문제는 아니다. ‘아 나는 육의 저주를 받은 인과의 자입니다. 아 나는 사생아입니다’라는 구절. 육의 저주를 받은 인과의 자를 사생아와 동일시하는 발상법. 사생아란 무엇인가? 사전상 의미로 법률상의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남녀간의 육체관계에서 태어난 자식, 호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결국 작가는 유전상의 문제(실제로 유전되는가도 모르겠거니와)를 법률과 제도에 의한 신분과 동일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실 소생이 아닌 부실의 소생이 사회적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을, 정숙하지 못한 여성의 자손은 한 가정의 정숙한 주부가 아니라 천생 남자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김동인의 「김연실전」(김명순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학교는 양반, 중인, 평민 계층을 한 영역속에 묶는 가장 좋은 제도였다. 이제 반상의 차별은 은밀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조선인들은 명실공히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대등한 자격으로 만날 수 있었다.

이 현실 상황은 김동인의 시니컬한 시선속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었다. 과거 주종관계에 있던 계층의 자손들이 이제는 대등한 자격으로 마주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김동인이 김명순의 경우에 이 상황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묘사했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명순에게는 넘어야 할 벽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소설의 자손일 뿐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이었다. 흔히 서녀는 다시 그 어머니의 전철을 밟아 남자의 소설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한 집안의 안채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바깥일을 하는 남자와 대립되는 위치에 선다는 점에서 대등할 수 있는 정실 부인과 달리 소설은 명실공히 근본부터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도록 공인된 존재였다. 김유봉의 한갓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여자가 상대방 남자와 대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김동인에게 가소로웠고 그 감정이 「김연실전」의 패러디의 문체로 드러난다. 김연실이 설사 자신이 대등한 자격으로 문학청년과 문학에 대해 논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당대 문학청년들은 그녀를 한 개 욕망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들에 의해 소비되고 탕진되어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 이런 현실을 예민한 김명순이 모를 이유가 없었다.

공적인 가족이란 제도 속에 들어있지 못한 서출, 더구나 여성인 탄실이 '나쁜 피'로 규정되는 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의 표현대로 그녀는 결백하면서도 주위의 시선에 의해 그렇게 규정되었고 평생을 누더기를 걸친 기분으로 살아야 했다.

그녀의 글쓰기의 대부분은 '나쁜 피'로 태어난 자신을 규정하는 시선에 대한 반항과 굴복의 과정이었다. 그 심리는 무척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어서 어디까지가 자신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타자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다. 「탄실이와 주영이」는 김탄실의 자전적 과정과 일치하는 고백의 소설이다. 특히 태영세란 인물은 1925년 당시 탄실을 겁탈하여 자살을 기도하게 한 김모 중위와 동일하다.

어미의 혈통을 닮아서 부정한 여자라는 규정이 내화되었다가 이성을 보았을 때 돌출하고 그 감정이 이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드러나면서 동시에 자기규정 때문에 그 이성에 강하게 끌리고 다시 이성에 의해 자신의 감정이 나쁜 피를 지닌 여성의 욕정임을 확인받았을 때의 자기동일성 파괴가 세세히 드러나 있으며 여성의 성성(sexuality)에 대한 자기고백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근대 소설이다. 성이 권력을 가진 쪽 중심으로 관리되고 새편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흔히 느끼는 성에 대한 수치감을 살필 수 있다.

## 5. 에로스, 모성애, 아가페 : 김원주의 경우

### 1) 『新女子』발간의 시대적 의미

#### (1) 『新女子』의 시대적 의미

지금까지 근대 초기 여성 문학 활동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손꼽히는 잡지가 『女子界』였다. 이 잡지는 당시 대표적인 신여성의 목소리로 문학사에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여자계』는 재동경 조선유학생 학우회의 기관지인 『學之光』의 여성판이란 정확한 지적처럼 남성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던 잡지였다. 1915년 4월에 여자유학생 친목회가 결성되었고 1917년 이들을 주축으로 『여자계』가 발간되었음에도 남성 필자의 수가

더 많았다. 반면 『신여자』는 이화학당 출신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집필하고 편집했으며 대담한 여성해방의 논리를 펴나간 본격적인 여성 주도의 잡지였다.

그들의 기상은 『창간사』에서 잘 드러나는데 『신여자』의 주간이었던 김원주는 3.1운동의 시대 정신과 여성 해방의 정신을 연결시켜 활기차고 낙관적인 여성 해방의 전망을 표현하고 있다. 또하나의 계급의 문제로 남/녀의 문제를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신여성의 문제가 ‘현모양처’의 교육제도에 있음을 간파한 논문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당대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한 견해들이 많았다.

반면 신여성이 새시대를 맞아 변한 남성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존재이여야 한다는 당대 남성의 솔직한 요구가 이 혁명적 견해들과 나란히 실림으로써 당대 사회의 이상(여성의 요구)과 현실(남성의 요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고난에 가득찰 신여성들의 삶을 예언하고 있다.

## (2) 『靑鞜』과 『新女子』의 관계

『신여자』는 1920년 3월 9일 인쇄되고 3월 10일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金元周(一葉)의 회고에 따르면 창간 당시 방정환, 유강열의 자문을 얻었고 잡지가 출간되기 이전에 나혜석, 박인덕, 신줄리아, 김활란 등이 <靑塔會>를 조직하여 1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며 공부하고 서로의 우의를 다졌다고 한다.<sup>20)</sup> <靑塔會>는 일본의 <靑鞜派>를 연상하게 하는 제목이며 실제로 김원주 등은 일본 여성 운동가와 소설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청답』은 일본 최초의 여성에 의한 문예잡지이다.<sup>21)</sup> 平塚雷鳥 등 日本女子大學 출신들의 여성이 모여 편집, 집필을 모두 해결한 잡지라는

20) 김일엽,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인물연구소, 1975), pp.121~122.

21) 堀場清子, 『靑鞜の時代』(岩波文庫, 1988), p.6.

점에서 이화학당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양백화만을 고문으로 모신채 거의 모든 일을 여성들의 힘으로 해낸 『신여자』 동인들과 유사한 면을 지닌다. 『청담』의 영향은 무엇보다 노라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입센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한국어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반이었다. 極雄의 「文藝에 對한 雜感」을 비롯해서 현철의 「近代文藝와 입센」과 金漢奎의 「八代文豪略傳」이 있고 梁白華가 『노라』를 번역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을 통하여 입센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1910년에 高安月郊에 의해 『社會の 敵』이 번역되었고 『イブセンノ 社會劇』에 『인형의 집』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 유학생들은 이런 글들을 통하여 입센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본다.<sup>22)</sup>

특히 『靑鞜』이 창간된 가을 1911년에 坪内逍遙가 이끄는 문예협회가 입센의 문세극 「인형의 집」을 상연하여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노라역을 맡은 여배우, 松井順磨子는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다. 良母賢妻主義를 여자 교육의 지표로 삼았던 시대에 노라의 자각은 婦德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靑鞜』은 창간호부터 입센의 극에 대해 언급했고 2권 1호에 「附錄ノラ」를 게재했다. 이 중 H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のらさんに」는 서간체의 형식으로 노라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글로서 자신의 신여성으로서의 어려움, 각오 등을 피력하고 있다.

## 2) 부르주아 지식인이 결혼관 : 신여성보다 기생이 낫다 「너희는 무엇을 어녔느냐」

김원주는 1896년 6월 평남 용강군 삼화면 덕동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용겸 목사는 아내를 끔찍히 위했으며 어머니 이마대 여사는 당시 여자로는 보기 드물게 진취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 딸만은 ‘바

22) 김학동, 『韓國 文學의 比較文學의 研究』(일조각, 1997), pp.272~273.

리마리 신고 가서 남의 종노릇'을 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5대 독자의 맏딸로 태어난 김원주를 교육시켰다. 덕분에 원주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진남포의 산송 보통학교, 이화학당을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소학교 때 어머니가, 중학 졸업 무렵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그녀의 표현대로 “일엽은 그림자란 동무 하나만 남았던 것이다.”

일엽은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소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영화 학교를 잠시 다녔으나 졸업은 하지 않았다. 이화학당 졸업 후 당시 연희전문 교수였던 李魯翊과 결혼한다. 김일엽은 임장화나 白性郁 박사와의 사랑은 곳곳에서 밝혀놓았으나 이노익과의 결혼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여 고학 끝에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영화학교에서 잠깐 수학한 후 주위의 소개로 이노익과 결혼했으며 그의 도움에 의해 『신여자』를 창간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었던 그에게 끝내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이혼하고 일본으로 다시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신여자』를 창간하기 전에 일본 동경에 체류할 때 『創造』 동인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듯 했다. 그녀의 호인 一葉도 이때 이광수가 일본의 여류 문인 桶口一葉을 따서 지어주었다고 한다.

이 상황은 당시 염상섭의 「너희는 무엇을 어땀느냐」에 거의 완벽하리만큼 동일하게 기술된다. 이런 현상은 당시 일본의 문단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靑鞵』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平塚明은 森田草平과 집을 몰래 빠져나와 밤열차를 탄다. 그 다음날 경관에게 붙잡혔고 그 일은 신문에 보도된다. 이 일은 얼마후에 森田草平에 의해 『燐煙』으로 소설화되고 그는 작가로서의 명성을 날리게 된다. 반면 明의 내면을 표현한 편지가 소설속에 원용되어 공개됨으로써 그녀는 森田草平의 문학적 명성에 이용당한다. 그야말로 草平은 자신의 스캔들을 팔아서 일약 유명 작가가 되었다. 반면 이 일 때문에 그녀는 부친의 엄명으로 절에 들어가 반감금생활을 해야만 했다.<sup>23)</sup>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신여성과의 사랑은 이 경우만큼 진지하게 다루어

진 적은 없는 듯 보인다. 작가는 정확하게 정황을 묘사하면서도 등장하는 신여성들을 정욕에 눈이 어두운 여인, 돈에 팔린 여인들로 규정함으로써 당시 남성중심의 시각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하나 흥미있는 것은 정욕에 눈먼 여인들에게 작가가 내리는 벌이 '임신'이라는 사실이다. 「제야」의 최정인도 부정의 증거로 임신을 하는 바람에 남편으로부터 축출당하고 있고 「너희는 무엇을 어딴느냐」의 마리아 또한 임신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부정한 여자에 대한 복수로서의 임신은 역설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재생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남성 지식인들은 대개 두 부류의 여성과 교류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신여성, 두 번째 부류는 기생이다. 그런데 중환이에 의하면 기생에 비해 신여성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돈으로 남성을 고르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생이 더많은 즐거움을 준다는 점이다. 다소 과장된 비판이기는 하나 이 진술에서 우리는 여성을 보는 당대 남성의 시점을 간파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신여성과 남성들에게 있어 대략 세 종류의 연애 방식이 등장한다. 안석태와 나명수 사이에 마리아가 있는 경우가 있고, 경애와 덕순 사이에 한규가 있는 경우, 문수와 최순자 그리고 재미교포와의 관계이다.

마리아는 이 작품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그려진 인물이다. 그녀는 여학교의 사감 대리교장인 브라운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미국 유학을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스물네 살의 전도양양한 그녀에게는 기차안에서 우연히 라명수를 만난다. 스물 전후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끼리 동성애 비슷한 감정으로 정서를 눌러왔던 그녀에게 라명수의 편지가 주어지자 들은 것잡을 수 없는 정열에 들뜬다. 그러나 곧 시들해지고 안석태에게 마음이 끌린다. 작품 속의 진술에 의하면 준수한 용모와 돈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

23) 堀場青子, 앞의 책, pp.29~34.

반면 명수가 기생 도홍을 향한 감정은 고통과 초조, 시기가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존귀하고 순수한 것이고 마리아가 안석태를 향해 느끼는 끌림은 욕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절제력이 없는 것이라는 논리는 명수와 마리아를 동일 선상에 놓을 때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남성 지식인 명수는 부인, 마리아, 도홍이 셋을 거치면서도 매우 신중한 것이고 진정한 것인 반면 신여성 마리아가 명수에게 순결을 바치고 안석태의 유혹에 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 이 논리는 여자는 자신의 첫 남자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 첫 번째 사랑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논리, 나아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그리고 또한 여성은 '돈'을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여기에 첨부된다. 신여성은 자신과 '의견'이 맞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며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된다. 이 논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논리의 바탕에는 교육 귀족의 자부심이 은밀하게 숨어있다. 당시 많은 소설들에서 가난하지만 고상한 지식인 청년의 애인을 탐하거나 빼앗은 부자들이 지식인의 소양을 갖추지 못했고 대감의 아들, 자작, 남작 등 양반의 위치에 있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성실한 지식인들은 기생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며 돈을 쫓는 신여성들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본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여인은 김명옥이다. 그녀는 원래 덕순의 남편과 혼인하였으나 첫날밤 고무다리에 놀라 소박을 놓고 이제 서양화가를 남편으로 맞아 살고 있다. 지금 남편을 본처와 이혼시켰으나 결혼 후 착실하게 살림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간다.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으로 결론맺어지지 않는 연애란 '부도덕'한 것이다.

이 부도덕한 마리아에게 작가가 내린 벌은 무엇인가? 그것은 '임신'이었다. 감정에 이끌려 안석태와 육체적 관계를 맺은 후 다시 라명수와의 사랑을 재확인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안석태의 아이를 가진 후였다. 안석태는 미두로 재산을 날리고 빈털털이가 된 신세였으나 어찌할 수 없게된

마리아는 안석태와 시골 예배당에서 조용히 식을 올린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정조관념이 문란한 경우 그것이 왜 부도덕한가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이것이리라. 육욕적 사랑이 재생산의 고리에 필연적으로 맞물려있는 동안, 그리고 이 고리에 가문이 남성쪽의 혈통을 지키는 것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올 때 여성의 정조관념은 도덕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 3) 사랑지상주의의 함정 : '나의 정조관'

1920년대 초기 『신여자』시대에 쓰여진 글들이 이론에 입각한 것이라면 1920년대 중반이후로 갈수록 김원주는 자기 고유의 기질적인 애정관을 드러낸다. 「나의 정조관」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담고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글에서 제래의 정조관이 정조를 물질시하여 한번 과거가 있는 여성을 그릇이 깨어져 못쓰게 된 것이라 생각하나 정조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같이 유동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조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타율적 도덕관념이 아니고 그에 대한 상상력이 최고로 조화한 정열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는 한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몇 사람의 여성과 연애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새 생활을 창조할 만한 건전한 정신을 가진 남녀로서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단순하고 깨끗한 사랑을 상대방에게 바칠 수 있다면 그 연인이야말로 순결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종래 육체적인 측면에서 논해졌던 순결의 문제를 부인한 것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로 정조 문제는 그 당시까지 여성에게만 강조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일부일처제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김원주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김원주는 여성의 정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당시 신여성들이 '사랑'이란 감정에 얼마나 순수하게 집착했는가를 보여준다. 김일엽의 글에는 유달리 '깨끗한', '순결한'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



한다. 그녀에게 사랑이란 감정 이외에 어떤 외적 요소도 불순물에 해당한다. 도덕이나 인습, 제도 등은 사랑을 저해하는 방해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증류수의 결정체 같은 사랑의 실체는 무엇일까? 만약 새로운 상대에게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랑을 표현해도 사랑이 순결하고 그것도 도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은 인간의 '욕망'일 수 없다.

김일엽은 더 나아가 본부인을 두고 신여성과 남성이 결혼하지 않고 사랑만으로 평생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순수함이란 개념이 얼마나 외적 요소에 의해 쉽게 몰들여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되지 결혼이란 제도가 무슨 소용이냐는 논리가 남성중심 사회의 논리에 얼마나 철저하게 영합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김원주의 “근래의 연애 문제”에서 알 수 있었듯이, 그의 순수한 사랑의 논리가 얼마나 쉽사리 욕망이란 단어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를 그녀의 신정조관에서 알 수 있다.

그녀는 원래 인간의 욕망이 억압되는데서 문명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랑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문명의 제도속에 변형되고 타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인데도 그녀는 여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그를 억압하는 사회제도에서의 초월로부터 찾으려 했다. 그 논리의 귀착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다. 초월된 사랑은 기존의 견고한 제도속에 융합되어 오히려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 4) 비정한 모성과 아가페

김원주는 1922년 9월 일본에서 사내아이를 낳는다. 상대는 규슈 제국 대학 법학과 학생인 太田清藏이었다. 그녀는 오타 세이조의 친구집에서 해산을 한 후 아이를 두고 조선으로 돌아간다. 세이조 집안의 반대도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이 일본땅에서 일본 남편의 가정에 안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타 세이조는 그후 조선총독부의 관리를 지

내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다.

그 아들이 이당 김은호 화백과 伊藤深水에게 사사했으며 동경제국미술학교에서 이론과 실기를 배운 일당 김태신이다. 그는 노년에 불교에 귀의했으며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을 몇 권의 책으로 남긴 바 있다. 김원주는 당시 김태신의 존재를 거의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냉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가 수덕사에 있을 때 찾아온 아들을 냉정하게 둘러보냈으며 낙심한 김태신을 따뜻하게 보살핀 사람은 다름아닌 나혜석이었다. 그녀는 수덕사 밑의 수덕여관에 기거하면서 김태신을 다독거렸다고 한다.<sup>24)</sup>

실제로 모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은 글의 곳곳에서 그 편린을 드러내고 있다. 「자각」에서 순실은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구시대 여성이었으나 남편의 배반을 계기로 시댁에서 뛰어나와 독립된 삶을 개척한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고백체로 씌어진 이 글에서 우선 문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모성에의 문제이다. 여주인공 순실은 사내아이를 출산하나 아이를 남편에게 돌려주고 여학교에 들어간다. 그 이유는 아이가 그녀의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고백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을 발표할 당시는 1926년 6월, 김태신이 4세 때이며 소설상의 아들의 나이와 일치한다. 따라서 「자각」은 사실상 김원주의 자전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나혜석 「모된 감상기」와 김원주의 「자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18년에서 1919년, 대정 데모크라시 융성기에 与謝野晶子, 平塚らいてう, 山川菊榮, 山田わがどい 등 당시 일급 사회평론가-부인문 제론자들이 벌인 「모성보호논쟁」을 살펴보아야 한다.<sup>25)</sup> 이 논쟁의 주요 주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모성의 문제로 가사와 노동의 양립 문제,

24)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 상·하(한길사, 1991).

25) 香内信子(편), 『資料母性保護論争』(とめす 출판사, 1984)을 참조.

부인의 의식 개혁, 자녀와 모친의 책임 문제, 여성의 성생활의 중시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책임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논자들은 외국의 이론을 읽고, 사회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식력을 증대시켜 나갔다. 연애, 결혼, 자녀 양육 등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는 개성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를 탐색했다. 나혜석, 김원주가 일본 유학 시기에 당연히 이런 책자들을 접했을 것이고 이런 영향들은 그들의 논문 곳곳에서 드러난다.

김원주의 경우, 어머니 되기에 대한 주저나 모색보다는 결단이 훨씬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두 여인의 개성의 차이와 김원주가 불교에 귀의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김원주에게 김태신은 수도 정진에 장애가 되는 '라홀라'의 존재였던 것이다. 라홀라는 부처님이 속가에 두었던 친아들의 이름이다. 세존이 출가하여 수도할 때 아들을 낳자 수행에 방해가 된다 하여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김원주가 모성의 연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종교를 통해서였고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당대 사회제도하에서 어머니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상징하는지도 모르겠다.

## 6. 결론

이항대립은 사물을 분류하는데 가장 명쾌하고 분명한 방식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그 명징함은 실제로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기보다, 양쪽의 차이를 근거로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이기 십상이다. 이 근대의 명징한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남성의 특징을 그 자체에서 파악하기보다 그 반대항에 놓인 여성의 특성을 대립축으로 알아내는 방식에 아주 익숙해 있다.

그런데 이 사고 구조를 따르다 보면, 양쪽항 중 어느 한쪽에 힘이 치우치면서, 다른 쪽은 저절로 주변적인 것, 열등한 것, 나쁜 것으로 외면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광인, 어린이, 피식민자, 여성, 가난

한 자 등 수많은 타자들이 양산되어 왔고 이들은 근대의 모순들을 극복할 잠재력으로 그 전복적 특성을 서서히 키워가기 시작했다.

1920년대 여성의 고백체 담론은 바로 이런 전복적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원래 고백체 형식은 외적인 권력에 패배한 자의 그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에 대항하려는 저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나는 보잘 것 없는 인간이지만 진실을 말했다’는 자부심같은 것 말이다. 이들은 확고한 논리이자 제도로서 근대를 이끌어가는 ‘사랑’을 근대인답게 자아 속에서 절대윤리로 동조하여 동일성을 획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참된 자기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질문하며 그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배제와 차별, 여기에 따르는 반복과 투쟁이 없는, ‘타자의 공동체’를 이루는 첫걸음이 된다.

당시 한국 신여성들은 ‘피식민자’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의 타자성을 지닌 존재였다. 물론 그들은 ‘피식민자’로서의 타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서구의 여성, 서구의 연애를 논리전개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그 한계는 ‘성욕’과 ‘모성’이라는 금기시되는 부분에 들어갈 때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때 그녀는 명징하고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불규칙하며 산만하기조차 하여 무책임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근대를 이끌어가는 확고한 ‘논리’를 잠식해 들어가서 전복시키고 다양화시키는데 유효적절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당시 신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그 방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사랑’-남성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여성에게 소중하고 절실한 체험이면서도 여성의 타자성을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1910~30년까지의 잡지 및 신문.

### 2. 국내논저

[단행본]

김일엽,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 인물연구소, 1975.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 상·하, 한길사, 1991.

김학동, 『韓國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 일조각, 1997.

[논문·논설]

강병식, 「일제하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 및 출산 실태 연구」, 『史學誌』 제28호, 서울 단국대 사학회, 1995.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66집, 1995.

최혜실, 「‘무정’에 나타난 근대성(modernity), 사랑(amour), 성(gender)」, 1998년도 현대문화학회 학술포럼 발표회, 1998.

\_\_\_\_\_, 「개화기 근대 정신과 자유연애 결혼」, 현대문학이론학회 '98 전국 학술대회(33차), 1998.

\_\_\_\_\_, 「여성 고백체의 근대적 의미-나혜석의 ‘고백’에 나타난 ‘母性과 性慾(sexuality)」, 『현대소설연구』 10, 1999.

[번역서]

姜尙中,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8.

Michel Foucault, 이혜숙·이영목 공역, 『성의 역사』, 나남출판, 1997.

### 3. 국외문헌

堀場清子, 『靑鞆の時代』, 岩波文庫, 1988.

Giddens, Anthony,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92.

香内信子(편), 『資料母性保護論爭』, とめす출판사, 1984.

